

## 흑인들의 문화적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초-카리브 정체성\*

— 『검은 대서양』에 대한 소고 —

김 용 호  
단독/울산대학교

Kim, Yong-Ho(2006), *La identidad transcaribeña reconstituida por los recuerdos culturales de los negros: el estudio sobre Black Atlantic*, *Revista Iberoamericana*, 17, pp. 1-22.

Antes de la llegada de Cristobal Colón, el Caribe estaba totalmente unido. El Caribe estaba ligado por el sistema de comunicación, del continente a las islas y de las islas al continente. Pero la colonización lo balcanizó todo. El Occidente despojó violentamente al Caribe de su historia y su cultura por varias medidas simbólicas, y oprimió a los caribeños al otro por silenciarlos. Les expulsó a la barbarie y a la periferia por medio del discurso de progreso e hizo una cultura caribeña subalterna por la diferencia de la cultura clásica y popular. Pero hoy en día el Caribe está recuperando su identidad caribeña por la selección de recuerdos comunes: culturas derivadas de plantación, civilización insular, estructura piramidal de clase social, fenómeno general de la cultura creolizada y gente constituida de oralidad.

El presente artículo se trata de los discursos caribeños de la identidad, que se resiste a los discursos principales europeos, que los hacen el otro. Este artículo consta de cuatro capítulos. En el primero y último capítulos tratamos la introducción y la conclusión. En el segundo trabajamos el proceso de la formación de la identidad caribeña como la cultura resistente. En el tercero, investigamos especialmente la obra de Paul Gilroy,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 En su libro, Paul Gilroy nos corrige el concepto eurocéntrico de la modernidad, que excluye la contribución de los negros, y nos presenta la identidad transcaribeña como el nuevo discurso posmoderno, porque el concepto de la identidad transcaribeña es un discurso que salta y cruza la diferencia de las naciones individuales.

**Key Words:** Caribcentric/ Diaspora/ Trans-caribbean identity, 카리브 중심성/ 디아스포라/ 초-카리브 정체성

---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전문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B00022)

## I. 서론

해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누군가 물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과거를 유토피아적으로 혹은 퇴영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복권시키고자 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는 특이한 것만을 찾아 헤매는 별종들에게나 어울릴 법하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회구하는 사회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패한 현행의 식민주의 체제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노예 형제들이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사회는 현대의 그 놀라운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의 그 따뜻한 형제애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이다. (에이메 세제르, 2004, 56,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다”는 정체성은 공동체 의식, 즉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소속의식으로부터 나타난다. 복원된 과거와 상상된 동료의식으로 무장한 채, 현재의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을 망각하고, 서로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정체성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해당 집단에게는 절대적 연대감을, 개인에게는 삶의 중추적 기능 중 하나인 소속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은 유사한 특수성을 지닌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형성되기에, 항상 타자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 적극적인 면을 찾아내서 만들기보다는 다른 집단의 부정을 통해서 구성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69년 비잔틴을 정복했던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황제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은, 로마 시대의 인종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경계가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렇듯 흑인과 백인이 공존했던 로마 문화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백인들만의 문화로서 표상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 문화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페르시아라는 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테네 문화, 스파르타

문화로 다르게 인식되던 그리스 문화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 하나의 문화로서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된 뒤, 18세기 이후에는 서구 문명의 고전적 기원의 지위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 짓기는 종교, 특히 이슬람과 관련해서 매우 심화된다.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곳에 사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과거에 대한 현재적 기억”이기에, 서구의 엘리트들은 이슬람을 항상 테러라는 “전략적 위치”로서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같거나,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헤브라이즘이 이집트 왕자(모세)에 의해 구성됐다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망각되었다. 근대 유럽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타자에 대한 식민화, 즉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정복과 수탈 및 노예화에 기초했기 때문에, 유럽의 계몽문화를 정당화할 필수적인 근거로서의 “검은 타자”와 “이슬람 테러”의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이리라. 결국 유럽은 인종과 종교적 상징이라는 타자를 동원해서 “서구중심주의”라는 신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로서의 서구중심주의는 그 거울효과로서 억압이나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에게까지 공통의 기억을 심어주게 된다. 그리고 공통의 기억은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외부 세력들에 저항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만든다.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는 반(反)식민 투쟁을 통해 외세를 축출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 외국 자본 세력을 막기 위한 국민적 방어벽을 형성했고, 피지배 문화를 열등하다고 묘사하는 지배담론을 배격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봉사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에 대항할 때는 이렇듯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던 공동체들 또한 내부의 구성원들과 관련해서는 쉽게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외국 열강들에 저항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체가 국민적 정체성, 통일, 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억압 및 배제를 자행하기 때문이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1, 155)

이렇듯 근대적인 정체성은 무수한 분할선과 경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 위에 기초해 왔다.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한 고양이에게 다른 고양이는 항상 같은 고양이인데, 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은 같은 인간이 아니다”(임지현·사카이 나오

키, 2003, 38)라고 비유적으로 언급했다. 인간이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공동체 내부에 포섭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고 차별하고 타자화하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카리브의 정체성 또한 이러한 포섭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탄생되었다. 사실 카리브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모호한 지역이다. 일단 지리적인 면만 보더라도, 도서 지역 국가들만을 카리브로 지칭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도서 지역에 벨리즈와 가이아나 같은 일부 연안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분석가들도 있으며, 심지어 플로리다, 유카탄, 니카라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까지도 카리브에 포함시키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백인, 흑인, 인디오와 그 사이에 섞인 다양한 인종들이,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보두교, 라스타파리안, 산테리아 등을 믿으며, 스페인어,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크레올어 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정치적·언어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이십여 개 국가, 3천 3백여만 명의 거주민들이, 역설적이게도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라는 신화를 통해 동일한 상상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카리브 인이라는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었을까? 수많은 다양성과 끝없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카리브의 동포와 형제로 만든 그 가능성과 필요성은 진정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작은 섬(국가)에 비해 카리브라는 보다 큰 정체성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리라. 더 큰 집단일수록 더욱 큰 안정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크기와 숫자에 대한 집착이 초-카리브 정체성을 꿈꾸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먼저 제 2장에서 이러한 카리브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그 지역의 다양한 역사들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것이며, 이와 함께 근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민족적 정체성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형성되는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 제 3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정체성의 대표적인 예인 초-카리브 정체성을 주창한 폴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 근대성과 이중의식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1993)

의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럽중심적인 근대성의 역사를 반대하고 그에 대한 반(反)담론으로서 흑인들의 디아스포라와 그로 인해 형성된 혼종문화에 초점을 맞춰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된 흑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및 미래에도 지속될 노예화 및 그로 인한 종속과 공포, 해방의 의미를 재해석한 길로이의 논의는 역사적 유물이 돼버린 마르크시즘을 대체할 새로운 해방담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II. 카리브 정체성의 형성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가 됐든 혹은 피해자가 됐든 간에, 어떤 역사적 과거 속에서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폭력이 기능한 결과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흑인이나 백인 같은 개념은 무척이나 추상적이고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누가 백인이고 누가 흑인인지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의 역사와 이로 인해 형성된 카리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백인 대 흑인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경험한 지역이기에, 유럽중심주의의 폐해와 그로 인한 저항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1550년까지 약 60년 동안 진행된 정복과 원주민 멸절의 역사, 그 이후 19세기까지 진행된 식민과정과 플랜테이션 농업 및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도입 등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 공통된 역사적 경험들이 카리브 정체성 탄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카리브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디아스포라로 형성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이 거의 멸절당하고 그 빈자리를 유럽(식민자)과 아프리카(피식민자)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채워 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과정에서 디아스포라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동

기는 바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이었다. 1492년 서구에 의한 정복 이후, 카리브 지역의 원주민 인구가 붕괴된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사탕수수 재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유입된 아프리카 출신 흑인노예의 숫자는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세기 초에 이미 1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사탕수수가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탕수수 재배는 노예 노동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카리브 지역 내 흑인(피식민자) 구성 비율이 백인(식민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저항적 정체성으로서 최초의 카리브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가해자들(백인)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피해자들(흑인)은 초기부터 식민주의자들의 학대와 횡포에 맞서 탈출과 봉기라는 끊임없는 저항을 시도했다. 마룬(maroon) 또는 시마론(cimarrón)이라고 불렀던 탈출노예들은 노예추격대를 피해서 깊은 산속에 팰렌께(palénque) 또는 길롱부(quilombo)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러한 노예 공동체에서 혼종성에 기초한 최초의 카리브 흑인문화가 형성되었다. 백인들의 농장에서 탈출한 노예들은 원래 아프리카 각지의 상이한 부족들이나 심지어 적대적인 부족들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신앙체계는 상호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달랐다. 하지만, 백인 노예 주인들의 재정복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크레올어)와 종교의식으로 무장한 공동체를 구성해 연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해야만 했던 것이다.

미국독립과 프랑스혁명 그리고 아이티와 라틴아메리카독립 등으로 점철된 18세기 후반 및 19세기 전반의 세계사가 민족혁명의 시기였다면 이 시기 카리브는 노예봉기와 해방투쟁 및 독립국가형성의 움직임이 맞물렸던 기간이었다. 1750년대 이미 탈주노예 마칸달(Mackandal)의 봉기를 경험했던 프랑스령 생도맹그에서 1791년 8월 22일 보두교의 사제인 부크망(Bouckman)과 일단의 흑인들이 노예해방을 주창하며 백인 및 몰라토 지주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봉기를 일으킨다. 그들의 봉기는 투생(Toussaint)에게 이어져 1801년 노예제 폐지와 함께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이는 마침내 1804년 1월 1일 세계 최초의 흑인독립공화국 달성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당시의 세계경제는 여전히 노예제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아이티의 노예제 폐지 사례는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는 아이티를 고립시키기 위해 연대하고 프랑스는 함대까지 파견해 무력시위에 돌입한다. 결국 유럽의 식민주의와 카리브의 반(反)식민주의라는 대립축이 근대국가형성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한편 이웃한 스페인령 산토도밍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프랑스령 생도맹그의 독립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1802년 인접한 산토도밍고에 프랑스 군대까지 진주시켰지만 아이티 독립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에 장 루이스 페랑(Jean-Louis Ferrand) 장군은 스페인령 산토도밍고 주민들이 아이티의 14세 미만 어린이들을 납치해 노예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아이티를 압박하고, 아이티의 데살린(Dessalines) 대통령은 해방투쟁의 공간을 스페인령 산토도밍고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이에 맞선다. 이런 과정에서 산토도밍고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었고, 이는 1809년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고 스페인이 통치권을 회복한 뒤에도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자 산토도밍고 내에도 아이티와의 통합 및 노예제 폐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1821년 호세 누네스 데 까세레스(Jose Nuñez de Cáceres)의 쿠데타로 구체화되었다. 까세레스는 아이티와의 통합 및 노예제 폐지를 약속하며 쿠데타를 기도했지만, 집권 후에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노예제를 존속시켰고, 아이티와의 통합보다는 동일한 스페인어권인 아메리카 대륙의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와의 통합에 매달렸다. 독립과정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라는 카리브 정체성대신 “스페인어권 문화”라는 대륙적 정체성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까세레스의 구상은 볼리바르의 무관심과 아이티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스페인령 산토도밍고는 약 22년간(1822-1844)에 걸쳐 아이티의 지배라는 비극적 결과만을 겪게 되었다.(Jaime de Jesús Domínguez, 2001, 95-112)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함께 맞섰던 카리브의 투쟁동지들이 독립국가형성기에 대륙적 정체성과 카리브 정체성이라는 민족주의의 덧에 걸려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양국 주민들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상반된 의식으로 가득 찬, 상호적대적인 하위민족주의

에 관한 새로운 역사가 출범한 것이다. 이는 향후 카리브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및 그 적용방법을 놓고도 카리브 역내 국가들 간에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아이티 및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곧바로 독립국가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곳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디아스포라와 함께 저항적 정체성으로서의 카리브 정체성이 폭넓게 확산된다. 19세기 초반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를 필두로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잇달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데, 이는 1802년 트리니다드를 필두로 19세기 후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사탕수수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플랜테이션 확대에 의한 노동력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노예무역금지조치는 새로운 흑인노예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은 노예제 폐지로 자유노동자가 되어버린 해방 노예의 재배치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탕수수 재배 중심지의 변화에 따라 흑인 노동자들을 함께 이동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19세기 중반 이후 카리브 연안 지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토목공사들과 바나나 플랜테이션의 확장도 흑인 노동자들의 대량 이주를 촉발시켰다. 19세기 이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점점 쇠퇴했지만,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계약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플랜테이션 임금을 떨어뜨리자 해방된 흑인 노동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 나섰는데, 파나마철도부설(1850-1854)과 뒤이은 운하건설(1881-1914) 그리고 중미지역의 철도 부설 등으로 대별되는 중미지협외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들 토목공사의 대가로 할양받은 토지에 건설된 대규모 바나나 플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흑인들의 이주를 촉발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카리브 지역 내의 디아스포라는 스페인어권, 프랑스어권, 영어권 사이의 흑인들에게 존재하던 기존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식민자들을 차별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경로를 따라 진행되던 노동자들의 이주를

통해 상호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언어권별로 상이하게 진행되었던 카리브 흑인들의 피식민 문화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동자”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하였고, 이는 결국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저항적 정체성으로서의 카리브의 특성을 폭넓게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Ruben Gowricharn, 2006, 8)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리브 지역에 대규모로 유입된 아시아와 유럽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 또한 흑인들처럼 매우 열악했기에 흑인들만으로 구성된 저항적 정체성은 의미가 반감되었고, 이는 1848년 이후 시작된 제1인태셔널의 정치적 선동과 1880-90년대의 국제적인 사회주의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의 영향 등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즉, 다시 말하면 카리브 지역 내에서도 계급에 기초한 반제국주의 투쟁이 시작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역내 디아스포라로 형성된 카리브 정체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에 기초한 국제주의적 연대가 저항적 정체성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계급적 측면에 대한 카리브인들의 고찰은 1920년대 이후부터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 닥치면서 중미지역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은 장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토목공사와 바나나 플랜테이션 중심의 중미 지역 디아스포라가 막을 내리고 미국으로의 이주가 촉발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흑인들에게 내걸었던 모든 약속의 파기와 함께 반(反)흑인 폭동이 전국을 휩쓸던 때(1919년)로, 이에 실망한 흑인들이 할렘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문화적 저항을 기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카리브 출신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었던 플랜테이션 경제와 흑인노예제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국 사회의 인종-계급 모순을 꿰뚫어 보았고, 이로 인해 당시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주류였던 인종 중심적 담론들 외에 계급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흑인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사상가들로 마커스 가비(M. Garvey)와 C.L.R 제임스(C.L.R. James), 린치(L. Lynch), 이니스(R. Innis) 등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메이카 출신의 가비는 1920년대부터 뉴욕의 할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로의 귀환”, “메시아적 흑인민족주의”, “흑인 공동체의 자결과 분리주의” 등을 주창했고, 트리니다드 출신의 제임스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의 진보적 흑인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르크스주의자였으며, 1960년대 “블랙파워운동”의 이론 형성 또한 린치와 이니스 등 카리브 출신 지식인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즉, “아프리카 피의 형제(ABB)”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W.A. 도밍고가 지적한 것처럼 “카리브 해 출신 지식인들이 없었다면 할렘의 급진적 흑인민족주의는 불가능했을”(Howard Winant, 1994, 6-7) 정도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긴밀했고, 이로 인해 마르크시즘과 아프리카민족주의의 상호영향에 대한 고찰 없이는 이 시기의 저항운동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할렘 르네상스 운동의 출현과 관련한 마이클 헨처드(Michael Hanchard) 교수의 언급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에 의하면, “억압적인 체제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해질 때 급진적 지식인들 대부분이 저항을 유지시키고 극화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의 영역에 관심을 돌리기”(Ibid, 7) 때문이다. 1930년대 카리브 지역의 저항적 정체성 운동인 네그리튀드(Négritude)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 반(反)흑인 폭동에 대한 저항으로 할렘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졌다면, 불어권 카리브 지역에서의 다양한 흑인운동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으로 네그리튀드 운동이 발흥했기 때문이다. 네그리튀드란 프랑스어의 흑인(negro)과 상태를 뜻하는 명사형 어미(tude)를 합친 것으로, 1939년 마르티니크의 시인 세제르가 흑인문화의 풍요성을 주장하기위해 그의 시집 『귀향수첩』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즉, 1930년대 프랑스 식민정책의 근간인 동화주의(同化主義)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프리카를 짓밟고 대륙의 모든 인간적 가치관을 노예화한 서구문명의 허구를 근본적인 각도에서 비판하고, (...) 오욕의 과거를 백지화시키고 소외된 상황을 전복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문화 혹은 아프리카의 총체적 가치관을 재발견하거나 재생시키려는 혁명적 의지를 보이는”(오생근, 1984, 337) 저항적 문화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폴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의 출판 또한 이러한 저항적 문화

운동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활하고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60년대의 철 지난 인종억압정책으로 회귀하던 때, 즉 대부분의 흑인 운동이 해체되고 방향성을 상실한 시기에, 근대세계를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역사에서 배제당한 흑인성의 가치회복 및 카리브 민중의 연대를 위한 공통분모로서 흑인문화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종결 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서구의 노동력부족과 미국경제의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외부적 요인 및 카리브 지역 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라는 내부적 요인은 이 지역의 흑인들을 영국과 미국 등 카리브 해 지역 바깥으로 배출시킨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외 디아스포라과정에서 경험한 정착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차별이 이들 카리브 인들을 또 다시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술한 것처럼 원래 카리브 출신의 이주민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 계급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었지만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 정착국가의 “백인 대비백인”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인종주의적 배타성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정착국가의 백인주류문화에 맞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의 흑인노예” 출신이라는 대항적 정체성을 채택해 연대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즉, 경제적 동기로 이주해서 “카리브 흑인”이라는 정치적·저항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영국인이자 흑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폴 길로이가 초-카리브 정체성이란 저항적 정체성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다.

### Ⅲ. 폴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 근대성과 이중의식』: 초-카리브 정체성의 추구

근대를 특징짓는 것은 디아스포라로 인한 인종간의 접촉과 그로 인한 대화와 혼종의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서구 역사는 근대성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흑인성을 배제하고

소외시켜 온 역사였기에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했다. 가이아나와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흑인이자 영국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길로이는 흑인들의 역사적 기여가 배제당한 불완전한 근대성 개념을 바로 잡고, 현재까지도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흑인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3년 『검은 대서양: 근대성과 이중의식』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길로이는 카리브 지역 내의 다양한 물적·질적 교류에 초점을 맞춘 뒤, 변증법이라는 서구의 해방철학과 카리브의 흑인 지식인들인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와 델라니(Martin Delany), 뒤부아(W.E.B. Du Bois), 라이트(Richard Wright) 등의 저작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해방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디아스포라로 형성된 흑인문화의 다양한 뿌리에 대한 고찰과 개별 국가 내외를 관통하는 친연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민족주의라는 근대적 담론에서 벗어나 초국가적 카리브 정체성이라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길로이는 이 책에서 헤겔이 사용한 주인과 노예의 우화를 차용해 근대성을 이중의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럽중심적인 근대성 담론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서구의 근대를 특징짓는 것은 상이한 인종과의 접촉에서 기인한 대화와 혼종의 영향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종속과 그에 대한 공포 및 해방으로 점철된 흑인들의 저항적 전통이 근대의 반(反)문화를 형성했다. 즉, 흑인들의 복잡한 디아스포라 경험과 그로 인한 다양한 반(反)문화적 전통이 근대성을 형성한 또 다른 핵심 축이었던 것이다. 길로이가 주인과 노예라는 헤겔의 우화를 차용한 것은 서구의 근대에 포함되지만(in) 소속되지는(of) 못한 흑인들의 이중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전통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근대 서구 철학자들의 입장은 명백한 긍정에서부터 급진적 반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이중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테면 셰익스피어는 칼리반의 저항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구성했고, 홉스는 식민지 정복을 도덕에 관계없이 정당화했으며, 로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식민지정복을 도덕적이라고까지 기술했다. 로크와 루소 등 서구의 근대 철학자들이 지지한 합리성의 이면에는 노예제도와 그를 유

지시하기 위한 공포체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심지어 노예제도가 근대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인식했던 헤겔조차도 아프리카인의 노예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적 성찰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의 합리적 원칙과 모순되는 인종주의적 노예제도라는 이율배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 즉 인종과 이성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술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중성을 띤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인들의 이러한 이중성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한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들은 현재도 아프리카인들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노예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흑인들은 예속에 대한 영원한 공포감에 떨고 있다. 그래서 길로이는 이러한 서구인들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노예화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과거의 디아스포라와 해방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대성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탈근대적인 해방담론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길로이는 먼저 19세기 및 20세기에 존재했던 흑인사상가들의 중심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헤겔의 변증법과 결합시킨다. 그는 먼저 코베이(Covey)에게 채찍질당한 프레데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저항 이야기를 분석한다.(Gilroy, 1993, 58-71)<sup>1)</sup> 이는 문명화에 대한 주인과 노예의 관점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심연이 존재함을 논하기 위해서다. 프로스페로는 아리엘을 문명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칼리반은 영원한 예속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인한 해방의 가능성을 선호한다. 노예추격대에 잡히기보다는 어린 딸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마가렛 가너 부인처럼 더글러스에게 죽음은 차라리 하나의 해방으로 인식됐다. 영원한 예속보다는 죽음이라는 저항을 선택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만방에 떨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글러스의 에피소드는 저항의 개념과 함께 초-카리브성이라는 저항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계몽주의 시대 노예와 주인의 이율배반적 관계는 카리브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잔인했던 식민주의와 플랜테이션 노예제의 역사 역시 카리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플랜테이션 노예제에서 탄생한 더글러스의 해방서사가 자연스럽게 카리브의

1) 본 논문에서 자주 인용될 원천 텍스트로서, 향후에는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기할 것임.

저항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코베이에게 저항한 더글러스는 서구의 전통에 동화된 가내노예로서 아프리카적 뿌리를 보존하고 있던 농장노예 샌디(Sandy)와는 다르게 아프리카적 전통을 미신으로 인식했다. 그러던 그가 코베이에게 저항할 때는 아프리카적 신앙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은 아프리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료인 샌디에게 영향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더글러스의 정체성 뿌리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토착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흑인들의 아프리카 귀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문명과 혼종을 이룬 아메리카 흑인들의 조상은 흑인임과 동시에 백인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밖의 어느 곳에서도 고향을 찾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Tommy Lott, 1994, 39)<sup>2)</sup>

아프리카를 더 이상 흑인들의 원초적 고향으로 인정하지 않는 더글러스의 인식은 19세기 당시 많은 흑인 사상가들이 공유하던 생각이었다. 노예제에서 막 해방된 흑인들은 자신들만의 국가건설을 모색했는데, 흑인들만의 국가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즉, 당시 흑인민족주의의 핵심 테마 역시 백인들과 똑같이 진보와 문명화라는 계몽주의 담론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의 정치적·경제적 관심은 오직 사회적 발전을 담보할 근대국가 모색이었지만, 정작 “문명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흑인 사상가들은 서구의 계몽주의 모델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모델을 흑인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하도록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로 인해 대표적인 흑인 민족주의자였던 딜래니와 블리든(Blyden)조차도 아프리카의 전통문화 고양에는 소홀했던 한계를 노정한다.(192) 하지만 블리든과 딜래니의 흑인 민족주의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19세기의 과학적 인종주의가 반영된 순혈주의를 주창하던 블리든은 혼혈을 제외한 순수한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귀환해서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딜래니는 종교적·당위적 주장만으로는 흑인들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아무 곳으로나 이주하자고 주장한다. 흑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

2) 원래는 더글러스의 “식민화의 어리석음”(The folly of colonization, 1894)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원본을 구할 수 없어서 토미 롯의 글 39쪽에서 재인용함.

라면 텍사스가 됐건 아이티가 됐건 중미 지역이 됐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길로이는 블리든의 블랙 시오니즘을 비판하고 달래니의 견해에 동조한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기에 더글러스 같은 혼혈인도 당연히 흑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만 하지만 블리든이 이를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길로이는 더 나아가 고대와 옛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때로는 현존하는 흑인들의 고통과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아프리카중심주의 역시 비판한다. 노예제도에 의해 파괴된 아프리카 전통의 재구성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프리카 문화를 영원불변하게 순수한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카리브 지역에서 종종 근대성을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했던 아프리카 중심주의라는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그 대신 문화적 상호접촉과 혼종으로 인한 이중의식을 근대성의 핵심개념으로 설파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길로이는 인종과 이성의 변증법을 억압했던 유럽 중심적 근대성을 배격하고 인종담론을 근대성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치환함으로써 지배와 저항, 혼종으로 점철된 새로운 근대성 담론을 개진한다. 그는 아프리카 전통 또한 근대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간 상호접촉의 결과 태동한 선택된 기억으로 파악한다. 민족주의 담론에서 제시한 경계의 구분 대신 가로지르기를 택한 것이다.

그러한 길로이의 혼종 문화적 관점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흑인음악에 대한 분석이다. 『흑인 민속음악의 영혼 *The souls of Black Folk*』에서 근대 흑인의 조건으로 이중의식을 설파했던 뒤부아의 영향을 받은 길로이는 가장 대표적인 반(反)문화적 전통인 음악을 흑인문화의 메타 코드로 사용한다. 구술적인 흑인음악의 반(反)텍스트성과 상황에 맞게 변환되는 기동성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사회에 공통된 특징인데, 이는 노예제도와 인종주의 나아가 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근대성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을 표현하는 핵심수단이었다. 아프리카적 기원보다 문화적 상호작용과 그 결과 혼종으로서 이중성을 떨 수밖에 없는 카리브성에 초점을 맞춘 길로이의 흑인음악연구는 문화적 혼합주의와 인종적

감수성의 정치역학 등을 정교하게 조율한 문화연구의 수작으로서 안토니오 베니테스 로호(Antonio Benitez-Rojo)와 유디세(George Yúdice) 등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에게도 큰 기여를 할 정도로 뛰어난 저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비판받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프리카 전통에 대한 모순적인 주장이다. 길로이가 때로는 전통을 “근대성의 반대 축”으로 규정하고 전근대적인 아프리카 전통의 보존을 해방으로 인식하다가도, 또 때로는 아프리카의 삶을 “무의미한 우상숭배(192)”로 인식한다는 것이다.(Tommy Lott, 1994, 41) 하지만 이는 길로이의 전통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길로이는 아프리카적 전통을 근대성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원불변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백인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저항을 위해 선택한 기억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길로이에게 아프리카적 전통은 현재의 흑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한 뒤 오늘의 불평등한 생활을 변혁시키는 저항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단순하게 과거의 삶을 반복하거나 재생하는 의미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길로이는 초-카리브적인 흑인 문화의 혼종적 형성이 매우 복잡하며 그렇기에 이론화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유연한 대표적 전범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카리브 혼종의 역사와 저항문화가 태동하는 이미지로서 인종적 억압과 상실, 망명의 공포를 구성하는 데 적절한 시공간인 노예선을 내세우고, 흑인음악의 수행을 반(反)문화의 형성을 예시하는 메타 코드로 사용한다. “흑인성은 사회구조로부터 파생된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실존적 자의식과 긴밀한 관계”(102)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가장 적절한 시공간과 코드로서 노예선과 음악만큼 적절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1440년부터 1870년까지 400년이 넘게 약 1,300만에서 3,000만 명의 흑인들이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메리카로 강제로 이주해 온 역사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배제당한 피해자들의 역사였으며, 그 뒤 이국에서 살아온 500년이 넘는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흑인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노예선은 선원과 노예로 나뉘진 사회로서 처음부

터 지배와 종속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오물과 악취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 한 집단은 지배하고 다른 집단은 억압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 환경에서 흑인들은 끊임없이 백인들의 가학적이고 성적인 학대를 견뎌야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강간의 희생물로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서 거부당하는 정체성의 부정을 경험한다. 흑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예선의 경험은 절망을 안겨다 준 경험이요 자살을 원하도록 한 경험이었으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한 경험이었기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가장 비극적인 경험이었다. 그런데도 길로이는 이러한 대서양 항로의 공포를 카리브 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파악한다. 전염병이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적 재난과 백인들의 폭력이라는 물리적 재난에 맞서 흑인들이 탈출을 도모하고 자유를 갈구하는 저항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길로이는 이러한 포로생활과 수송 및 반란과정으로 점철된 대서양 항로의 경험, 즉 지배와 감금 및 도망과 반란이라는 노예선의 경험을 향후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 제국의 지배 하에 있는 카리브 지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혼종 경험의 메타 코드로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길고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한 흑인들, 즉 노예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곧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비극과 조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신화적이고 순환적인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 대신 서구의 직선적이고 진보적인 세계관을 수용해야만 되는 좀비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들은 흑인의 영혼을 내면에 품은 채 서구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문화적 파괴와 함께 새로운 혼종문화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노예선에 승선한 노예는 서구적 세계관과 비서구적 세계관의 충돌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음악은 흑인들의 현실에 맞게 변형된 문화적 기억의 전범이었기에, 초-카리브 정체성을 표현할 상징으로서 가장 적절했던 것이다. 노예 학살의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은 유럽 및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리고 다른 흑인 문화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재창조해 낸다. 결국 카리브 해안에 도착한 아프리카 정신은 대서양 항로를 통해 재탄생한 것이다.

길로이가 주창한 초-카리브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선택된 기억으로서의 아프리카 정체성 대신 디아스포라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카리브 정체성을 주장한다. 개별 국가들의 고정되고 완결된 선택된 기억으로서의 근대 민족주의 담론 대신 현재도 끊임없이 고통 받고 저항하는 대서양 항로의 모든 흑인들을 연대시킬 수 있는 유동적인 포스트모던 담론을 주장한다. 즉,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외부 세력들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체성과 통일, 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억압 및 배제를 자행하는 내부 세력들에 제도 저항하는 현재적 의미의 저항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서구중심적인 근대성 담론을 비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유럽중심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흑인들의 정치적·사회적 구조 분석보다는 문화 분석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정치적 해결수단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권 국가들에 있는 흑인들에게만 한정된 경험의 제한성과 젠더에 대한 성찰의 결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아쉬움은 카리브 지역 현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의 책에는 크레올리테 이론과 관계의 시학 등을 주창한 샤푸아조(Patrick Chamoiseau)나 글리상(Edouard Glissant)에서부터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제임스(C.L.R. James) 등에 이르기까지 카리브의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카리브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현재의 지식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을 흑인들의 해방을 위한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문제제기 차원의 논의로서 이해한다. 카리브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상이한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 민중들이 다함께 잘살기 위한 비전을 찾아나가는 문제제기의 일종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형성된 초-카리브 정체성은 더 이상 지식인들만의 담론이 아닌 민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독트린이 아닌 민중들의 삶이 우선시되어야 이러한 문화적 담론들을 정치적 행동주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 IV. 결론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의 카리브는 하나였다. 식민화가 카리브를 파편화시킨 것이다. 서구는 식민기간 내내 수많은 사회적 상징기체들을 동원해 카리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탈했으며, 지역민들을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타자로 만들었다. 진보 담론을 내세워 야만과 주변부로 내몰았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를 내세워 그들의 문화를 하위문화로 만들었다. 그런 카리브가 초국적 자본과 노동의 시대를 맞아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아니 만들고 있다. 세계화의 힘이 세계를 더욱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는 때에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지역(공동체)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파편화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카리브 인들은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와 흑인들을 최하층으로 밀어내는 피라미드식 사회구조, 그리고 제국의 언어와 크레올화 등을 공통된 기억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카리브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여전히 강력하다. 개별 국가로 쪼개진 섬들의 역사적 파편화는 심각하고 제국의 언어로 갈린 공용어의 차이와 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카리브 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제국, 특히 강력한 이웃인 미국과 캐나다의 압력일 것이다. 이러한 제국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든 헤게모니 투쟁에서 효과와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투쟁의 규모이며, 그 과정에서 인종이나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는 가장 구심력이 강한 대표적인 투쟁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해진 투쟁의 규모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파편화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 대한 저항적 담론으로서의 카리브 정체성을 고찰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카리브 지역의 다양한 역사들과 관련된 카리브 정체성의 다양한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제 3장에서는 길로이의 『검은 대서양: 근대성과 이중의식』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정

체성인 초-카리브 정체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 과정에서 흑인들이 배제된 서구적 근대성 담론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디아스포라 및 혼종이론을 원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는 서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했던 수많은 카리브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임을 살펴봐왔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하게 유럽 또는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문화적 조합을 구성해내고 있다. 다문화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동질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검은 대서양”이라는 위치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카리브의 흑인문화를 연구함으로써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함께 초-카리브 정체성을 주창한 길로이의 저작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익 외(2005), 『종족과 민족』, 서울, 아카넷.
- 베네딕트 앤더슨(2002),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역, 서울, 나남출판사.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2001), 『제국』, 윤수종 역, 서울, 이학사.
- 에드워드 W. 사이드(2005), 『프로이트와 비유럽인』, 주은우 역, 서울, 창비.
- 에이메 세제르(2004), 『식민주의에 관한 담론』, 이석호 역, 서울, 동인.
- 오생근(1984),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초현실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백낙청 편, 서울, 창작과비평사, 334-384.
- 임지현·사카이 나오키(2003), 『오만과 편견』, 서울, 휴머니스트.
- 피터 스토킨(2004), 『국제이주』, 김보영 역, 서울, 이소출판사.
- Brah, Avtar(1996), *Cartographies of diaspora*, USA, Routledge.
- Dominguez, Jaime de Jesús(2001), *Historia Dominicana*, Santo Domingo, Abc editorial.
- Edwards, Norval(1994), "Roots and some routes not taken: A caribcentric reading of *The Black Atlantic*",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27-35.
- Gilroy, Paul(1987),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3),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Against rac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lissant, Edouard(1989), *Caribbean discours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Gordon, Lewis R. & Jane Anna(2006), *Not only the master's tools*, London, Paradigm Publishers.
- Gowricharn, Ruben(2006), *Caribbean transnationalism*, USA, Lexington Books.
- Lott, Tommy(1994), "Slavery, modernity and the reclamation of anterior cultures",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36-45.
- \_\_\_\_\_ (1994), "Black cultural politics: An interview with Paul Gilroy",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46-81.
- Rasco, José Ignacio(1987), *Hispanidad y cubanidad*, Miami, Ediciones Universal.
- Reid-Pharr, Robert(1994), "Engendering The Black Atlantic",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11-16.

22 이베로아메리카研究 제17권

- Rothberg, Michael(1994), "Small Acts, Global Acts: Paul Gilroy's Transnationalism",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17-26.
- Thomas, Hugh(1997), *The slave trade. The story of the Atlantic slave trade: 1440-1870*,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Vitale, Luis(2000), *Música popular e Identidad latinoamericana*, Punta Arenas, ATELI.
- Watts, David(1987), *The West Indies: Patterns of Development, Culture, and Environmental Change Since 14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ant, Howard(1994), "Notes on Paul Gilroy's The Black Atlantic", *Found Object*, No. 4,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5-10.

김용호

울산대학교 카리브 해 연구센터

E-mail: joaquin kim@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11일